

# 신태용 감독 “A조 들어가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개최국 자격 참석한 톱 시드 국가 중 ‘러시아’ 가장 해볼만한 상대  
FIFA랭킹도 한국에 뒤져... ‘최악’ B·G조 피해서 그나마 다행



모두가 원했던 ‘약한 개최국’과의 만남 신태용 감독의 생각도 다른 팀 사령탑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2018 러시아월드컵 조 추첨을 마치고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신 감독이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아시아 최종예선을 간신히 통과한 한국은 월드컵 진출국 32개국 중 최약체로 분류된다. 경쟁한 톱시드 국가들이 보기에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4번 포트의 팀 중 하나다. 우리가 그나마 비벼볼만한 톱 시드 국가는 개최국 자격으로 A조에 포진한 러시아 정도다. 지난 10월 러시아 원정에서 2-4로 패했지만 당시 한국은 유럽파로 구성된 반쪽짜리 대표팀이었다. 러시아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도 65위로 59위인 한국에 밀린다. 신 감독은 “사실 A조에 들어가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 편이 아니었다. 4번 포트 추첨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불린 팀은 같은 아시아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였다. A조와의 인연이 맺어지지 않은 뒤에는 지뢰밭만 피하자고 마음을 바꿨다. 벨기에, 잉글랜드가 포진된 G조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포르투갈, 스페인이 버티고 B조 역시 뻥뻥해 보였지만 이미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이란이 3번 포트에 합류하면서 우리가 가세할 가능성은 소멸됐다. 한국은 월드컵에서 유럽에 유독 약세를 보였다. 역대 성적은 4승6무11패.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의 3승을 제외하면 2010년 남아공월드컵에서 그리스를 2-0으로 꺾은 것이 유일한 승리다. 다행히 G조는 건너뛰었다. F조 추첨 때 이름이 불린 파나마가 앞서 F조에 뽑힌 멕시코에 밀려 G조로 이동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대륙은 한 조에 묶일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F조와 H조의 4번 포트만 비어있



는 가운데 남은 팀은 한국과 일본 뿐이었다. 이탈리아 축구 스타 파비오 칸나바로가 뽑은 이름은 한국이었다. 한국은 독일, 멕시코, 스웨덴이 기다리고 있던 F조로 향했고 자연스레 일본은 폴란드, 세네갈, 콜롬비아와 H조가 확정됐다. 일본 언론은 F조가 아닌 H조가 그나마 수월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신 감독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최선으로 생각했던 A조, 반드시 외면하고 싶었던 B조, G조가 아닌 이상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신 감독의 속내다. “스페인·포르투갈 조와 벨기에·잉글랜드 조를 빼면 다 마찬가지로 봤다. 우리보다 약한 팀은 없기에 어디든 들어가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 팀, 저 팀 가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 영원한 캡틴 박지성 “부상 없이 팀으로 잘 준비해야”

후배들 선전 당부 “최대한 할수있는 만큼 보여주길”

9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한국 축구가 내년 러시아월드컵(2018년 6월14일~7월15일)에서 독일, 멕시코, 스웨덴과 한 조에 속했다. 신태용(47)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1일 자정(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크렘린궁 콘서트홀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독일, 멕시코, 스웨덴과 함께 F조에 속했다. 2002 한일월드컵 4강, 2010 남아공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의 주역이었던 박지성 대한축구협회 유스 전략본부장이 후배들에게 선전을 당부했다. 그는 협회를 통해 “제 팀을 상

대포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부상 없이 얼마나 팀으로서 잘 준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집중해서 최대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모습을 월드컵에서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팀이 모여서 함께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각자 소속팀에서 자기 스스로 컨디션 조절을 잘 하고 부상을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로 지난 대회 우승국이다. 이번에도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 중 하나로 꼽힌다. 멕시코는 북중



미의 맹주, 스웨덴은 이탈리아를 60년 만에 월드컵 무대에서 쫓아낸 강국이다. 한국은 스웨덴, 멕시코, 독일 순서대로 맞붙는다. 첫 상대인 스웨덴과의 경기는 내년 6월8일 오후 9시에 니즈니노보고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이어 24일 새벽 3시에 로스토프에서 멕시코를 상대한다. F조의 최강자로 평가받는 독일과는 27일 오후 11시에 카잔에서 맞붙는다. 험난한 행보가 예상된다. 뉴스

## 손흥민, 시즌 5호골...토트넘, 왓퍼드와 1-1 무승부

‘폴타임’ 기성용, 팀은 스토크시티에 1-2 역전패...이청용 결장

손흥민(토트넘)이 시즌 5호골을 터뜨리며 팀을 패배에서 구해냈다. 3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비커리로드에서 열린 2017~2018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5라운드 왓퍼드 원정 경기에서 팀이 0-1로 뒤진 전반 26분 동점골을 터뜨렸다. 4경기째 리그에서 승리가 없는 토트넘은 손흥민의 동점골로 패배를 면하며 7승4무4패(승점25)로 6위에 머물렀다. 이날 손흥민은 4-2-3-1 포메이션에서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토트넘은 전반 13분 만에 카발레에게 헤딩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

다. 토트넘은 전반 26분 손흥민의 동점골이 터지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손흥민은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우측에서 올려준 크로스를 반대편에서 쇄도하면서 오른발로 밀어 넣었다. 시즌 5호 골이자 리그 3호 골이다. 지난달 22일 도르트문트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결승골을 넣은 후 11일 만에 골 맛을 봤다. 토트넘은 그러나 후반 7분 수비수 다빈손 산체스가 퇴장을 당하며 수적 열세에 놓였다. 다급해진 토트넘은 에릭센 대신 무사 시소코를 투

입하며 변화를 줬다. 이어 후반 32분에는 손흥민을 불러들이고 에릭 리랄라를 교체로 내보냈다. 이후 왓퍼드의 공세를 막아낸 토트넘은 원정에서 승점 1을 챙기며 경기를 마쳤다. 한편 기성용(스완지시티)은 스토크시티 원정 경기에서 폴타임을 소화했다. 그러나 스완지(승점 9)는 1-2로 역전패하며 7경기째 무승(1무6패)의 수렁에 빠졌다. 순위는 강등권인 20위다. 이청용(크리스탈팰리스)은 웨스트브로미치 원정경기서 결장했다. 뉴스

## ‘죽음의 조’로 향한 메시와 호날두

2018러시아월드컵 각각 힘겨운 상대와 같은 조 묶여



‘Group of Death’. 월드컵과 같은 굵적굵적한 메이저 대회가 열릴 때마다 외신들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우리 말로 풀면 ‘죽음의 조’다.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도 어김없이 죽음의 조가 탄생했다. 공은 둥글고 투구는 열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로서는 D조와 B조가 가장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는 예선부터 힘겨운 일전을 벌이게 됐다. 아르헨티나는

1일 자정(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크렘린궁 콘서트홀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크로아티아, 나이지리아, 아이슬란드와 D조에 묶였다. 남미예선을 어렵게 통과한 아르헨티나는 유럽 두 팀(크로아티아·아이슬란드), 아프리카 한 팀(나이지리아)과 2장 뿐인 16강 진출을 놓고 격돌한다.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로 대

표되는 아르헨티나는 예선에서는 부진했지만 우승후보로 손색이 없다. 루카 모드리치(레알 마드리드)가 버티고 있는 크로아티아 역시 우승권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토너먼트행을 노릴 수 있는 팀이다. 인구 33만명의 아이슬란드는 유로2016에서 잉글랜드를 꺾으며 세계 축구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무게 중심을 서서히 옮기는 중이다.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축구를 구사한다. 나이지리아 역시 만만하게 볼 상대는 아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4개팀 중 가장 낮은 50위에 불과하지만 아프리카 특유의 분위기를 탄다면 이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나이지리아는 5번(1994년·1998년·2002년·2014년·2018년)이나 아르헨티나와 월드컵 조별 리그에서 격돌하는 악연을 이어갔다. 포르투갈, 스페인, 모로코, 이란으로 구성된 B조 역시 D조 못지 않은 접전이 예상된다. 유럽 챔피언 포르투갈과 톱시드 같은 2번 포트의 스페인을 중심으로 모로코, 이란이 가세하면서 뻥뻥한 대진표가 완성됐다. 유로 2016을 통해 포르투갈의 메이저 대회 우승 한을 풀어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와 수많은 스페인 스타들의 격돌은 B조를 넘어 조별리그 최대 빅매치로 손색이 없다.



아름다운 연기 펼치는 김예림 3일 서울 양천구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KB금융 피겨 코리아 챌린지2차(명창동체육관 대표선발 2차전) 경기 여자부 싱글 그룹에서 김예림이 연기를 펼치고 있다. 뉴스

“강정호 미국비자, 5~10년 걸릴 수도”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러츠)의 비자 발급 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피츠버그의 지역 미디어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는 3일(한국시간) 강정호 비자 발급 관련 보도를 냈다. 이 매체는 “강정호가 내년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될 수 있을 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썼다. 미국이주변호사협회장 출신 윌리엄 스톡 변호사의 견해도 전했다. 스톡 변호사는 “일반인의 경우 비자 발급 거부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점과 미국에 와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야 한다. 유명인의 경우 경과 시간이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톡 변호사는 강정호의 비자 발급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음주 운전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신 질환에 해당한다. 짧은 기간에 여러 번 음주 운전을 했다면 5~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3차례 음주운전으로 비자를 받지 못해 2017시즌을 통째로 날린 강정호는 피츠버그 구단의 도움으로 도미니카공화국 윈터리그에 참가했다. 피츠버그 구단은 한국에서 개인 훈련만 해오던 강정호가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아길라스 시바에나스 임단을 주선했다. 하지만 강정호는 적응에 애를 먹다가 결국 방출됐다. 뉴스